

### 선각 스님 참회 촉구 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가 해인사 고불암 경매 건과 인근 골프장 건설 재추진 대장경 축전 주자장 부지 매각 등 일련의 해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주지 선각 스님의 참회와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도 해인사가 신청한 매각 처분 승인 반대를 조계종 총무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총무원이 해인사가 신청한 부지 매각 승인을 내렸다.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회장 원학)는 4월 12일 '해인사 사태에 대한 해인사승가대학 동문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해인사와 관련한 몇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로 해인사 뿐만 아니라 종단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며 "해인사 주지는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발로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문회는 현자·승원·주정 스님 등 7명을 위원으로 '해인사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에 앞선 5일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 해인사 소위원회(위원장 진화)는 "해인사 토지 처분 승인을 반려할 것"을 총무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총무원은 13일 종무회의에서 해인사가 매각 승인을 신청한 3만 6820㎡(1만1100여 평) 중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할 2만5153㎡(7600여 평)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 **조동섭 기자**

## “콘텐츠 개발보다 기조 확립부터” 조계종 포교원, 모바일 포교 주제 정책연찬회 열어

스마트폰 시대에 맞춘 모바일 포교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은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불교 디지털 웃을 입다'를 주제로 제3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 '종단 모바일포교를 위한 기반과 지향' (송주실 포교연구실 주임) △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전망' (박준규 SK네트웍스 솔루션사업팀 대리) △ '불교콘텐츠 Social Publishing(사회적 출판) 플랫폼' (김종민 이미지 홀딩스 대표)이 발표됐다.

송주실 주임은 발제에서 "불교 교구의 매력을 지닌 채 각종 디지털 매체에서 구현되는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총무원·포교원·불교문화사업단 등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송 주임은 "포교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 앞서 종단의 기조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웰빙 불교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콘텐츠, 아날로그 감성을 유지한 콘텐츠, 단순한 이식이 아닌 모바일 포교를 위한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SK네트웍스 솔루션사업팀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디지털 웃을 입다'를 주제로 열린 제3차 포교정책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대리는 발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출시를 기점으로 종교생활이 바뀔 수 있음을 설명했다.

박 대리는 "스마트폰 도입으로 단순한 통화수단이었던 통신기기가 다양한 정보의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며 "꼭 절에 가지 않고서도 불교의 수많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등 종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대표는 발제에서 불교 판

권 플랫폼 콘텐츠개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출판'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교 콘텐츠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픈 퍼블리싱 플랫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출판(Social Publishing)은 소셜리싱(Socialising)이라고도 하며, 사회적·공익적으로 유의한 콘텐츠를 발굴·기획·출판하는 일련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또, 오픈 퍼블리싱 플랫폼은 개인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콘텐츠 자료를 전문적인 디지털 출판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게 돕는 작업 공간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교원장 해종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불교문화사업기획단 관계자 다수가 참여해 모바일 포교와 관련한 종단적 관심이 적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포교원은 모바일 포교와 관련해 현재 각종 콘텐츠 개발 업체의 제안서 및 견적 요청을 검토 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안상수 대표 사퇴 요구 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일, 이하 환경연대)는 4월 16일 '불교의 자주권을 유린한 안상수 한 나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연대는 성명서에서 "종단개혁 이후 자주적이고 대사회적인 불교계의 긍정적 행보가 명진 스님이 폭로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종교권력에 대한 억압과 통제, 간섭과 자율 환경연대는 성명서에서 △수행자를 죄파 스님으로 매도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퇴 △자주성 침해 당한 조계종단의 참회 △불교 육화 정신에 의거한 총무원과 명진 스님의 소통과 화합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 봉은사·東大 약학대 연관 주장 파문 조계종 “김동철 의원 사퇴”... “심려끼쳐 죄송”

MB정부가 동국대 약학대 선정을 발미로 봉은사 직영전환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민주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기되고, 조계종 총무원은 김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 차원의 해명을 촉구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동철 의원을 잇따라 항의방문 했다.

김동철 의원은 4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봉은사 외압 사건은 청와대가 나서서 교과부에 동국대 약학대 신설 승인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신 조계종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내쫓아 불교계를 친정부 성향으로

바꾸려 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승 총무원장은 지난해 11월 2일 예방 은 박정호 총과 대 정부수석에게서 '불교계 현안들을 잘 알고 있다.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12월 15일 자승 총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15분과 독대했고, 올해 1월 19일 예방 은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에게 약대 신설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승 총무원장은 진 수석을 만나고 수일 후 '약대 유치 못하면 사표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봉

은사 직영사찰 전환은 약대 신설 확정 15일 만에 전격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3년 전 동국대 신장아 씨 학위 위조 사건과 연결시켰다.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은 대변인 원담 스님 명의의 입장을 통해 김동철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차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14일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총무국장 종민 스님 등 국장급 스님이 김동철 의원을 각각 만나 항

의했다. 같은 날, 조계사 신도 200여 명도 민주당을 항의 방문했다.

원담 스님은 "김동철 의원의 발언은 조계종과 동국대를 모독하고, 불교 자주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해명과 조치, 김동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김동철 의원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 차원에서도 내용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철 의원은 13일 동국대 간부 10여 명의 항의 방문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것이지 불교를 폄하한 것은 아니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이어, 총무원 국장급 스님들에게 "제 불찰로 스님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공식 석상에서 다시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봉은사 토론회 30일 개최

총무원·봉은사·단체  
2시부터 8시까지

봉은사 사태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봉은사-불교단체간 토론회가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일정을 발표했다. 간담에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김동진 상임대표, 정응기 재가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총무원 2인, 봉은사 체에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법안 스님,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참석한다. 사회는 성태웅 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주요 논제별 3차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100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법안 스님은 "토론회 결과가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지만 봉은사 사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종도평가에 따른 여론형성과 정책 반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1일 봉은사 직영철회를 위한 다섯 번째 특별법회에서 이동관 청와대 수석의 개인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부적절한 언행 의혹을 폭로해 물의를 빚었다.

스님은 11일 법회에서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었다. 총무회의에서 봉은사 직영 전환 결정 후에도 청와대에 출입했다. △자승 스님이 대

통령 선거 당시 힐튼호텔에서 "이명박 장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건배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총무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봉은사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원담 스님은 입장을 통해 "△기획실장은 평소 청와대를 '밥 먹듯이' 드나든 적이 없다. 3월 3일 역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고,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다. △자승 스님은 대선 시기에 힐튼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만난 사실도, 힐튼호텔 자체에 간 일이 없다. △12월 15일 총무원장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의 조찬 회동은 이미 언론에 기사화된 바 있다. 종단 최고 지도자와 국가 수반이 만난 자리에서 한 사람의 문제가 다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봉은사 측은 12일 입장을 내고 "총무원이 '확인되지 않은 일' '허위사실' '거짓 주장' '비방'이라고 치부한 명진 스님의 발언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2009년 11월 30일)과 기획실장 원담 스님(2010년 3월 27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반박했다.

성호·초격 스님 등 초·재선 총무원 스님 13명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명진 스님의 정치활동 중단과 김영국씨의 총무원 보직 해임, 총무원의 소속한 직영사찰 지정 절차 집행을 촉구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영국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이상진 기자**

## 천태종, 영통사 봉축법회 추진

천안한 사태와 금강산 부동산 동결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달는 가운데 천태종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개성 영통사에서 합동봉축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천태종 나누며나되기운동본부(총재 정산)는 4월 21일 개성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회담을

열고, 5월 21일 개성 영통사 합동봉축법회 봉행 등을 협의한다.

나누며나되기운동본부는 "천안한 사태로 남북관계의 추이가 불확실 하지만 이미 3월 경 통일부에 남북 허가를 신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천지가 모두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모두 나와 한 몸입니다

### -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4대강 개발을 반대하며 -

**생명의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자연과 5천만 국민의 젖줄인 4대강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 각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4대강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행위는 이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사전 환경성 검토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 만능주의적 발상은 이미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발 지역의 침수와 발암 유발물질 추출, 수천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희귀동식물 멸종, 문화재 훼손, 유기농 농민들의 축출 등 우려했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암록에 이르길 “천지가 모두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모두 나와 한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홍수 예방, 물 확보, 고용창출, 관광 수익 증대라는 허상을 내세워 자연의 순리를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현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나와 우리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후손들의 삶의 기반마저 훼손할 것입니다. 지난날 탐욕을 겸허히 성찰하고, 못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참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1천만 불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4대강 개발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된 것을 파하고 정법 수호를 위해 모인 우리는 오늘 수륙대재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4대강 개발을 반대하고 생명의 강 살리기에 동참하는 모든 후보들을 적극 지지 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남한강 여강선원을 필두로 4대강 지역에 법당을 개원하고 매주 수륙재를 봉행하여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전국적 주요 사찰에 4대강 개발 중단 촉구 현수막을 내걸고, 주말 법회와 초하루 법회 등을 통해 4대강 개발의 부당성과 비경제성, 반사회성,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 할 것이며, 불자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오늘과 같은 극단적인 현실이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의 부족함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못생명에 대한 공경심과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삶, 소속지족의 소박한 일상 등을 담은 청규를 제언함으로써 생명살림에 대한 불자들의 의지를 모아낼 것입니다.

강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정화하고 자연의 생명을 양태하고 보존하는 생명체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강의 줄기를 막고 보를 쌓는 그 자체가 이미 살생의 과정이며 어떠한 논리라도 대신할 수 없는 악업임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4대강 개발 반대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가 큰 울림이 되어 위정자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불기2554(2010)년 4월 17일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동참자 일동**



낙동강 낙단보 현장 Before



낙동강 낙단보 현장 After